

〈美國의 꿈〉과 田園文學의 이중성

—J.F. Cooper를 중심으로—

李 誠 元

서울大學校 英文科

1.

미국대륙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라는 생각이 미국문학의 한 특징적 성격을 이루어 왔다는 점은 다시금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문화 일반, 혹은 미국적 에토스에 관하여 지나간 30여년간 쓰여진 가장 훌륭한 저술들을 보더라도, 미국을 타락 이전의 낙원으로 보고자 하는 충동이 미국의 시인·작가들을 강하게 지배해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¹⁾. R.W.B. Lewis는 19세기의 대표적 작가들은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광활한 공간에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그리고자 했음을 역설하고, H.N. Smith는 미국인의 의식을 서쪽으로 서쪽으로 향하도록 했고 이것을 이른바 Manifest Destiny로 정립시킨 것도 바로 〈庭園〉의 신화였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견해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활력은 어디까지나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며 전원예에 대한 강조도 사실은 〈전원화된 도시〉에 대한 예찬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다. 사실 가장 미국적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Carl Sandberg나 그의 문학적 조상인 Whitman에 있어서 도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Lewis, Smith, Marx 등의 저술에서 도시의 의미가 암암리에 감소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의 견해는 미국인들의 의식속에 전원주의가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를 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치적 래디칼리즘이 전원주의와 손잡을 수 있는 것도, 문명비판의 가치가 전원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최초의 인기작가이자 미국문학의 풍경과 미국적 영웅의 archetype를 만들어 낸 J.F. Cooper의 Leatherstocking tales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문학과 전원주의와의 관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은 미국문학에서의 전원주의적 측면을 고

1) 여기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저술들은 R.W.B. Lewis, *The American Adam*(Chicago, 1955); H.N. Smith, *Virgin Land; The American West as Symbol and Myth* (New York, 1950); Leo Marx,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New York, 1964); David W. Noble, *The Eternal Adam and the New World Garden* (New York, 1968) 등이다.

2 美 國 學

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 마디로 전원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의 전통에서 볼 때 미국사회와 미국문학이 어떻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전원문학의 전통을 미국사회와 문학을 이해하는 〈準據의 틀〉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전원문학이 결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해서만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미국의 꿈〉, 유토피아, 〈미국적 아담〉 등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정치성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Cooper와 같이 신대륙에 설립된 사회의 속성에 관한 근원적 물음을 다루고 미국의 국가적 체험을 정면으로 언급한 작가에게서 이미 전원문학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Cooper의 소설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전원문학에 관한 예비적 고찰을 통해 미국문학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Pastoralism의 정신적 뿌리는 문명사회의 복잡성으로부터 물러나 보다 자연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충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원문학이 아무리 단순성·소박성 등을 예찬해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깃든 정치적 숨意는 전원문학을 배출한 사회자체만큼이나 복잡한 것이었다. 우선 Virgil의 첫번째 Eclogue를 볼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서 피리를 불고 있는 목동 Tityrus 앞을 Meliboeus가 울며 지나간다. Meliboeus는 失鄉民인 것이다. 로마제국은 전쟁이 끝난 후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이제껏 땅파먹고 살던 사람들로 부터 땅을 몰수하여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Meliboeus에게 Tityrus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다. “날이 저물었다. 공기도 차갑다. 자 우리집으로 가자. 더운 밥과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식의 위로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날밤을 재워주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점에 관해서는 Tityrus는 지극히 무력하며, 현실에 대한 pastoralist의 태도는 이렇게 대단히 애매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위계질서를 역설한 Sidney의 *Arcadia* 같은 작품은 차치하고라도, *As You Like It*나 *The Tempest*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전원문학은 자연으로 물러앉아 소박한 생활과 정신적 성숙을 찬미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되돌아 갈 왕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원문학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위한 미학적 에토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그 理想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상력에 매개되어 설정된 것이므로 전원문학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의식의 변혁이지 결코 사회구조의 직접적 변혁과는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²⁾.

2) 이점에 관해서는 Bruno Snell, *Discovery of the Mind: Greek Origins of European Thought*

물론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소극적 행위가 의식의 변혁을 통한 적극적 정신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전원문학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미국문학에서만 보더라도 Thoreau의 전원주의와 civil disobedience는 어떤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을까? 또 60년대 히피족에서 볼 수 있듯 反戰운동이라는 명백한 정치행위가 자연예찬의 형태로 나타난 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물음은 전원문학이 갖는 여러 가지 정치성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각각의 사실이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났는가를 면밀하게 고찰하여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각각 상이한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근사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고, 현실에 대한 이같은 <미국적> 대응에서 우리는 미국의 신화 내지는 이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Garden이라는 이념은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 되어왔다. Virginia주의 자연의 풍요를 논한 17세기의 기록부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공화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Jefferson의 꿈, 나아가서는 1970년대에 다시 논의된 도시재개발과 도시의 전원화 등은 모두 신대륙의 토양에서 기인한 문화적 토양이기도 하다. 또 미국을 푸르게 하자는 운동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환경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절실하게 대두된 생존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예컨대 Gary Snyder類의 불교사상에의 경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갈 인간형으로 최소한의 도구와 일용품만 가지고 자연에 보다 가까운 소박한 생활을 갖고 학문과 여가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제시했다. 그가 심취한 불교적 의식세계도 결국 Frost가 그랬고 Thoreau가 그랬듯, 나아가서 Virgil이 그랬고 Spencer가 그랬듯, 자연 혹은 농촌에 침잠하여 플라톤적인 내면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우리가 Robinson Crusoe의 모습을 읽는다면 이것이 한낱 우리의 奇想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전원문학의 또하나의 유형인 georgics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 로마는 농사일에 무지한 병사들에게 땅을 주었다. 이에 Virgil은 농사의 실재를 가르칠 뿐더러 토지와 농업을 예찬하고 노동의 가치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교훈적 의도에서 *Georgics*를 썼다. 이 시는 말하자면 운문으로 쓰여진 농업지침서인 것이다. *Eclogues*가 심미화된 내적 성숙과 만족(otium)이라는 가치를 제시했다면, *Georgics*는 질서잡힌 사회와 건강한 내쇼날리즘을 고취한 효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시이다. 특히 養蜂을 가르치면서 꿀벌세계의 엄정한 질서와 조직을 찬미한 부분, 또 네번째 georgic의 저 유명한 농부에

(New York, 1960)에 수록된 "Arcadia: The Discovery of a Spiritual Landscape"와 Richard Cody, *The Landscape of the Mind* (Oxford, 1969)의 서문 "Pastoralism and Aesthetic Platonic Tradition"을 참조할 것.

4 美 國 學

찬의 대목에서 건강한 국가의 도덕적 경제적 근간으로 농업을 예찬한 것 등은 로마의 건국 신화를 서사시로 읊은 제국의 시인 Virgil의 정치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부분인 것이다.

아마도 英文學에서 *Georgics*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 시는 Thomson의 *The Seasons*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영국의 팽창주의와 國富를 찬미한 이 시를 낳은 Augustan Age의 지적 풍토가 Jefferson의 중농주의, Crèvecoeur가 그린 미국의 농부,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있을 미국적 전원주의의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한다.

18세기 영국문학에 수 없이 등장하는 저택, Park 등은 Whig의 득세에 따라 낙향하게 된 Tory가 강제노동 아닌 <강제여가>를 누린 곳이다. 그들은 Horace의 가르침대로 번잡스런 현실을 피해 은둔자로 낙향하여 읽고, 쓰고, 사색하면서 정신적 성숙과 의식의 계몽을 꾀할 것을 역설했으며, 그러한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들의 저택을 낙원에 비유했다. 그들은 말하자면 낙원으로 추방된 것이었고, 추방되었기에 그들은 Tityrus로서의 여가를 누릴 수 있었다. 애당초 Meliboeus에게 여가란 없는 것이었다.

고금을 통해 물러나 앓을 그 어떤 곳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파스토랄이라는 대안은 실현가능한 것이 못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서양의 역사는 여기에 타결책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식민지 경영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속 확산되어 나아가는 프론티어와 이에 따른 주민의 이주와 정착은 말하자면 Meliboeus를 Tityrus로 바꿔주는 것을 가능케 한 셈이었다. 이른바 <미국의 꿈>이 이 점과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미국사회와 문화를 보는 우회적 관점을 더 연장하여 영문학에 나타난 두 작품—*The Tempest*와 *Robinson Crusoe*—를 살펴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Leo Marx에 의하면 Shakespeare의 *The Tempest*에 나오는 新世界의 패러디에서 미국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³⁾. Prospero의 섬이 실제로 미국대륙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었다는 말은 물론 아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으로는 Prospero일행은 파스토랄의 정석대로 그 섬에서 자기성숙과 사랑의 결합을 이루고 기타 자연이 베풀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린 후 본래의 dukedom으로 돌아가는 반면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계속 남아 신대륙을 지배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화를 자연의 상태를 상징하는 garden과 문명의 힘을 상징하는 machine의 조화로 본 Leo Marx가 그의 저술에서 이 작품을 신대륙의 역사에 대한 우화로 읽은 것은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The Tempest*에서 Caliban의 야만의 세계는 Prospero가 지닌 “white magic”에 의해 길들여지고 순화된다(여기서 white magic이라는 말은 나쁜 목적의 black magic과는 구별되는 좋은 목적의 마법, 즉 문명을 가능케 하는 지식의 힘을 뜻

3) *The Machine in the Garden*, 제 2장.

4) 이런 점에서 E. Césaire가 Shakespeare의 *The Tempest*를 고쳐 쓴 것은 대단히 흥미 있다. Césaire의 *Une Tempête: d'après "La Tempête de Shakespeare—adaptation pour un théâtre nègre"*에 관해서는 A. James Arnold, “Césaire and Shakespeare: Two Tempests”, *Comparative Literature* 30:3 (Sumner, 1978), pp.236-248을 참조할 것.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Leo Marx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다른 뜻, 즉 “백인의 마법”이라는 의미까지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과학기술로 처녀지의 자원을 문명사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야말로 어느나라보다도 미국역사의 특징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나 Shakespeare의 이 작품과 미국문화의 관련성은 여기에서 끝난다. 오히려 미국문화의 속성을 보다 많이 포용하는 설명적 모델은 Defoe의 *Robinson Crusoe*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우리의 시각에 따라 이 작품은 미국의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로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나 *Robinson Crusoe*와 같은 소설이 쓰여진 것이나 모두 동일한 세계사적 흐름의 두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Robinson Crusoe*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취해 왔다. 우선 이 작품에는 자본주의의 속성과 중산층의 성장,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전개 등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여러 요소들이 예증적으로 들어있다. 이러한 측면이 압도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므로 이 소설이 정신적 구원과정을 기술한 자서전적 형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되지 못했는데, 이점 또한 George Starr의 유명한 연구서⁵⁾ 이래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물론 자본주의의 발달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입증된 이상, 위에 말한 이 작품의 두 측면은 결국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이렇듯 중산층의 소유욕과 창의성, 개인주의, 자립심, 청교도주의, 개척정신, 그리고 전원문학에서 구가한 지적 성숙 등 미국문학에서 공존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뭉뚱그려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Robinson Crusoe*는 최초의 영국소설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미국문학에서 제시되는 인간상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rèvecoeur의 농부는 물론, 이 글에서 주로 언급될 Natty Bumppo, 혹은 *Walden*에서의 Thoreau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Crusoe*는 바다로 나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다. 난파를 당한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 Jonah가 되지만, 섬리에 의해 유일하게 선택된 생존자로 무인도에 닿게 되어, 자신의 말대로 <또 하나의 아담>이 된다. 섬리는 그에게 성서와 총과 약간의 일용품들을 남겨 주었다. 섬의 동쪽에 닿은 그는 정신적 구원을 체험한 후 그 섬을 문명화시킨다. 일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섬의 서쪽은(미국문학에서 대륙의 서쪽의 Wilderness가 그렇듯) 속죄의 장소요, 극복해야 할 역경인 것이다. 그 땅을 개척하는 것은 자신을 개선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 섬의 서쪽은 결코 후퇴 혹은 도피의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 무장을 하고 기꺼이 나아가야 할 장소이다. *Robinson Crusoe*가 이와같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입각한 georgic이라면, 이 소설 속에는 강인함, 인내심, 불굴의 정신, 실용주의적 현실감각, 철저한 자립정신 등 역경과 싸울 수 있는 이른바 미국의 개척정신의 제반 미덕들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어떤

5) George A. Starr, *Defoe and Spiritual Autobiography* (New York, 1965).

6 美 國 學

의미에서는 그들의 복음을 의칠 광야를 필요로 했고 또한 선택된 자로서 스스로 문명사회로부터 이탈하여 Wilderness의 세계로 나아갔다. 이 소설은 그런 점에서 Virgil식의 전원주의와 청교도주의라는 미국문학의 양면성을 설명해주는 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Crusoe와 Friday의 관계는(Prospero와 Ariel의 관계가 그렇듯) Natty Bumppo와 Chingachgook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상상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원적 에토스를 들 수 있다고 했지만, 시작부터 미국적 전원주의는 낭만주의의 토양을 이루게 될 루쏘이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⁶⁾. 미국문학의 전원주의는 Hobbes와 Locke가 기묘하게 절충된 18세기 영국의 전원문학, 그 중에서도 Georgic의 전통에서 쓰여진 작품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Hobbes와 Locke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제한된 의미에서일 뿐으로, 자연의 상태를 아나키의 상태로 보고,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은 인간의 문명화시키는 힘을 기다리고 있다는 Hobbes의 생각과, 자연의 상태에서의 인간의 선택, 자연권,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준 Locke의 사상을 가리키고 있다. Locke와 Hobbes는 여러 모로 대척적 관계에 있는 사상가이지만, 18세기의 영국은 이 두 입장을 기묘하게 혼합할 수 있었다⁷⁾.

미국문학에서 이러한 요소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자료로는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의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를 들 수 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새 移住民들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자연은 그녀의 포근한 무릎을 열어 준다”

“내 소유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재산, 오로지 나만의 권리, 자립 등의 생각이 내 마음을 부풀게 한다.”⁸⁾

이러한 귀절들이야말로 *Second Treatise on Civil Government*에서 Locke가 〈자연의 상태〉를 논한 후 사유재산의 근거를 논증한 논리와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이 편지의 話者인 James는 Jefferson이 그랬듯, 땅의 소유권과 자유·독립을 동일시하고 있다. 토지소유가 정신적 평정, 독립심, 자유 등을 가능케 하고, 이것이 곧 노동의 윤리적 가치, 도덕적·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정, 사색하고 지적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여가, 자연으로부터의 교육 등의 인접한 가치와 쉽게 결부될 수 있음은 전원문학의 오랜 전통이 말해 주고 있는대로이다.

한마디로 Crèvecoeur의 미국은 Virgil의 세계이다. 단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미국의 꿈

6) Tony Tanner, “Notes for a Comparison between American and European Romanticism,” *Journal of American Studies* 2:1 (1968), p. 90. 아마도 William Bryant는 미국문학에서 드문 예외에 속할 것이다.

7) Hobbes와 Locke에 관하여는 특히 C.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Lonhon, 1962)를 참조할 것.

8) J.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New York, 1971), p. 24.

임없이 확산되어가는 frontier 와 그 너머에 있는 황야의 존재이다. 18세기 Augustan Age 의 자연은 앞서 언급한 Thomson 의 *The Seasons* 에서 보듯 혼동과 아나키의 상태이다. 동일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Crèvecoeur 에서도 서부의 황야는 무정부상태·야만의 상태이다. 총과 도끼를 든 개척자들의 첩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농업을 하는 정착민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여 황야는 길들여진다. Crèvecoeur 가 찬미한 자연은 길들여진 경작지를 의미하고, 이곳은 동부로 대표되는 상업권의 도시와 서부의 황야와의 중간지점—Leo Marx 의 표현을 쓰자면 Middle landscape—이다.

미국독립전쟁은 왕당파인 Crèvecoeur 로 하여금 서부로 도피·이주하여 프론티어의 일부가 되도록 강요한다. 말하자면 농부 James 는 Tityrus 에서 Meliboeus 의 신세로 바뀌는 셈이지만, 그러나 로마제국의 변방 barbaros 의 세계와 미국의 frontier 가 다르듯, 미국문학에는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어 있다. Virgil 에서는 Meliboeus 의 문제가 제기만 되고 전원문학 특유의 landscape of the mind 를 제시하는 것으로 귀착하는 반면, 나아갈 서부를 가진 미국의 농부에게는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면서 <스스로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그 이후의 미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을 신화화된 서부인의 모습이 새로이 준비되는 것이다. Cooper 가 그린 Natty Bumppo 가 그 대표적 인물이 되겠으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인간상은 서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법을 초월하여 law to oneself, self-reliance 등을 외친 Emerson 이나 Thoreau의 초월주의적 이념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3.

Lewis 는 미국소설의 주인공이 “모든 가능성”을 허용하는 공간에 존재한다고 말했지만⁹⁾, Cooper 의 소설을 전제할 때 이것은 꼭 정확한 말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상반되는 가치관을 동시에 추구한 이중성의 작가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 이중성이란 자연의 상태의 아나키와 토지소유권을 토대로 하는 위계질서이다. 이 둘을 모두 포용하는 위치가 Crèvecoeur 식의 middle landscape 가 되겠는데, Leatherstocking takes 의 전반적 분위기는 이 둘을 포괄하는 중립지대라기보다는 대토지 소유주의 귀족주의와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라는 양극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작농·상인·소시민 등은 비중이 작은 인물들이든가 아니면 Cooper 가 혐오하는 인물 혹은 그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다. Cooper 의 공감이 이렇게 양극을 향하고 있다면 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McWilliams 는 *The Pioneers* 에서 Cooper 가 서로 대조되면서도 동등하게 훌륭한 두 주인공을 창조해내고 그들을 서로 대치시키되 평가하려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¹⁰⁾. 여기서 그

9) *The American Adam*, p.91.

는 개인의 권리인 자유와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사이의 긴장을 이 소설의 주제로 지적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두 극단의 대립이야말로 Cooper의 소설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라는 점이다. 이 소설에서 Effingham 소령과 같은 인물이 비록 고귀하지만 실패자로 머물고 마는 것을 보면, 아마도 Cooper가 대토지 소유주인 귀족을 보다 위엄있고 순수한 인물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와 같은 존재는 그 시대에는 이미 시대착오적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미국사회는 이미 다수의 중산층에 주도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Cooper 자신이 Whig를 표방해 왔다는 사실은 계속 문제거리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기술편법에 있어서는 Scott와 많이 유사하지만 자신의 共和政에 대한 열의는 Scott의 Tory的 觀點과는 반대라는 뜻에서 Cooper는 자신이 <미국의 Scott>라고 불리는 것에 몹시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oper가 귀족을 이상화하고(그들이 역사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새로이 부상하는 중산계층을 경제적으로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역시 저급한 부류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에서 귀족은 고귀한 패배자이고 중산층은 저급한 승리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Natty Bumppo를 통한 이른바 <미국적 아담>이라는 신화의 설정과 위의 사실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Cooper가 그린 중산층에는 *The Pioneers*의 Marmaduke Temple과 같은 훌륭한 인물도 있다. 그러나 *Leatherstocking tales*가 진전됨에 따라 Temple과 같은 인물은 결국 *The Deerslayer*에 등장하는 Hurry Harry라든가 Tom Hutter와 같은 인물로 대체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The Deerslayer*의 시대적 배경이 *The Pioneers*보다 이전임을 고려할 때, Temple의 조상도 결국 Hurry Harry같은 인물이었음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것은 중산층에 대한 Cooper의 태도가 점점 비판적이 되고 있다는 징표라고 해야 할까? Natty의 만년을 보여주는(따라서 시대적으로 가장 後가 되는) *The Prairie*에서 Captain Middleton이나 Paul Hoyer와 같은 “좋은” 사람도 Hard-Heart라든가 Natty와 같은 인물은 물론이요 Bush 일가에 비해서도 별로 흥미롭지 못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후자라고 보아야 한다. Cooper는 중산층의 지배와 frontier에서의 그들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작품의 극적인 구성이라든가 인물의 신화화에 있어서는 독자의 관심이 전혀 그들에게 향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H.N. Smith는 Cooper가 실제로 그의 딸에게 *The Prairie*에서 Middleton이나 Inez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키지 말고 나머지 인물들만을 다루었어야 했었다고 술회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¹¹⁾.

10) John P. McWilliams, *Political Justice in a Republic* (Berkeley, 1964), p. 101.

11) Rinehart 판 *The Prairie* (1950)에 있는 H.N. Smith의 서문을 볼 것.

이와 같은 사실들은 미국문학에서 논의되는 <미국적 아담>이라는 신화도 불가피하게 이중성을 갖는 것이고, 나아가서 미국소설이 감당해야 할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Cooper의 이중성은 <미국적 아담>이라는 신화를 견지할 수 없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는 표시가 되겠는데, 그럴수록 Cooper의 소설 속에서 이 신화는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Natty Bumppo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신화의 구축과 당대역사에 의해 그 신화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하는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Cooper의 소설이 제시하는 미국이라는 낙원은 출발부터 “Et in Arcadia ego”라는 우울한 상실감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Cooper가 아무리 역사적 구체성을 지닌 소설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소설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신화적 차원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의 원천은 역사였으나 그는 그의 소설을 신화의 세계로 고양시켰다. 역사 혹은 현실은 신화를 구축해 가는 시발점이었을 뿐이다. D.H. Lawrence도 Cooper의 소설이 현실의 제현과는 무관함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욕구충족”이라고 불렀다. <미국의 꿈>이 욕구충족의 측면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딜레마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아뭏든 욕구충족은 긍정적 이상의 설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Lawrence는 Leatherstocking tales에서 “decrecendo of reality and a crescendo of beauty”¹²⁾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때의 beauty야말로 Cooper의 소설이 지닌 신화성과 그 시적 환기력이 아닐까 한다. 말하자면 신화는 역사에 대한 반명제로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Leatherstocking tales에서 두개의 연대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왔다. 이 차이는 신화와 역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선 작품이 쓰여진 年表이다. 이 연표를 따르면 *The Pioneers* (1823), *The Last of the Mohicans* (1826), *The Prairie* (1827), *The Pathfinder* (1840), *The Deerslayer* (1841)의 순서가 된다. 두번째로 소설의 주인공 Natty의 성장과정으로 보면 *The Prairie*만 예외일 뿐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즉 *The Deerslayer*, *The Pathfinder*, *The Last of the Mohicans*, *The Pioneers*, *The Prairie*의 순이다. Leslie Fiedler는 이점에 관하여 “Leatherstocking tales에서 첫작품으로부터 마지막 작품에 이르는 동안 주인공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여 성장해 간다—노년에서 젊음으로, 경험의 세계에서 순수의 세계로, Cooper에게 회미하나마 기억은 남아 있는 시절로부터 그의 先代가 태어나기도 전인 전적으로 상상적인 과거로”¹³⁾ 라고 말하면서 Cooper가 상상속에서 미국의 자연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사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세번째 소설 *The Prairie*를 쓸 때에 이르면 Natty는 대평원으로 나아가게

12) D.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1964), p. 50.

13) Leslie Fiedler,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Paladin, 1970), p. 180.

되는데, Cooper 자신은 미국을 떠나 파리에서 그가 생전 보지도 못한 대평원에 관해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역사는 신화로 대체되는데 그럴수록 이 소설들은 쓰여진 순서에 입각해 읽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야만 Cooper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가 그 이후 미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게 만든 archetype가 어떻게 배태되는가 하는 점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The Pioneers*는 <자연의 상태>가 문명사회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Judge Temple과 Natty Bumppo 간의 대립인데, 이 문제는 임자없는 땅에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자연의 상태에서 소유권의 문제는 어떻게 제기되는가 하는, 말하자면 미국의 설립자체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물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¹⁴⁾. (물론 여기서 원주민의 권리는 아예 문제되고 있지 않다. 애당초 원주민들은 자연의 일부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Judge Temple은 Natty의 젊은 동료 사냥꾼이 쏜 사슴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고 결국 그는 새로 설치된 수렵금지법을 어겼다는 죄로 Natty에게 벌금과 구류의 판결을 내린다. 여기서 Natty의 굴하지 않는 태도는 가히 영웅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McWilliams에 의하자면 이 태도는 적어도 18세기 말로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Natty로 대변되는 <자연의 상태>는 효력을 잃었던 것이다. 재산권은 “모든 문명의 토대”이고 “개인주의” 혹은 “이기심”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자발적 노력의 뿌리”라고 확신하고 있던 Cooper였으므로¹⁵⁾ 미국땅이 타락 이전의 에덴이라고는 쉽사리 믿는 바도 아니었고, 설사 그 땅이 유럽에서의 실책을 백지화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tabula rasa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arcadia를 이루는 꿈은 오로지 혼돈의 상태인 자연의 풍요에 인간적 질서를 부과하는 점진적 개선뿐이라고 믿은 Cooper였으므로, 왜 그가 이 소설에서 단순히 Judge Temple의 편에 서지 않고 새삼스러이 Natty를 통하여 자연의 상태의 점유권을 제기하는 것일까? 문명이 자연 혹은 자연상태의 인간에서 발견되는 선함을 파괴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회의는 Cooper에게는 부수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에 대한 문명의 우월성을 회의하지 않았고 자연의 상태의 파괴의 불가피성을 암암리에 제시한 것이 그였다. 다만 미국이 그 理想에 충실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보일 뿐이었는데, Natty의 신화화는 이 회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The Prairie*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지 않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가 인간사가 아닌 장소—Cooper는 보지도 못한 대평원—인 것이다. 대평원의 풍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법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평원의 광경을 서술한 장면에서는 인간세를 반영하고 암시하는 상징적 색조를 띤 부분이 산재해 있으며, 이런 묘사부분은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일정한 방향으

14) H. N. Smith, *Virgin Land*, p. 68.

15) Cooper, *The American Democrat* (Baltimore, 1969), pp. 186, 187.

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평원은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도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면세계의 투영으로서의 대평원은 독자를 작가 자신의 의도로 몰입시키고 그가 이복하고자 하는 신화를 부각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끝없이 전개되는 대평원의 황량하고도 단조로운 풍경은 Cooper의 정치적 좌절감과 우울함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작품이야말로 미국사회의 전개가 Cooper의 눈에는 미국의 이상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쳤기에 그가 느꼈던 실망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작품에서 Natty가 죽는다는 사실은 Cooper가 그와 같은 인물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뜻한다. 역으로 Bush나 Hover, Middleton에 견주어 Natty에게 신화적 크기와 고귀함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작가는 그를 죽여야 했을런지도 모른다. 신화는 성취되었으되 역사는 그와 같은 인물은 무대에서 사라지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사라짐으로써 그의 부재는 커다랄 상실감을 낳고 이 상실감은 그 신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복한다. 신화는 과거지사가 되고 현재는 Hover나 Middleton 같은 인물들에게 맡겨진다. 아마도 대평원 자체가 미국적 에덴과 미국적 아담이라는 신화의 숙명을 前兆하는지도 모른다.

미국적 신화의 기저에 있는 순수의 개념은 칼빈주의적 원죄의식과는 상치된다. Fiedler는 말하기를 Natty와 같은 인물을 제시한 Cooper야말로 미국작가로서는 드물게 칼빈주의의 흔적이 없는 작가이고, 원초적 순수성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反청교도적 음조도 그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Natty를 “죄를 범하지 않은 Faust”에 비유하고 바로 이 점이 그의 소설로하여금 철학적 도덕적 깊이를 결여하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¹⁶⁾. 아마도 이 말은 악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는 애당초 관심을 두지 않은 Cooper식의 <미국적 아담>의 신화가 지닌 치명적 결함을 지적하는 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은 *The Last of the Mohicans*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 이 소설이 악의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처리해 버리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흥미로운 바 있다.

1757년이라고 시대적 배경을 명시한 이 소설은 미국이 막 탄생하려는 순간에 촛점을 맞추었지만 기이하게도 주된 분위기는 상실감이다. 제목에서도 이미 “ubi sunt”의 모티브를 읽을 수 있지만, 이 상실감은 몰락을 맞은 인디안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인 백인들의 것이기도 하다. 땅을 얻었으되 이것은 폭력과 죄의식에 오염된 계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의 우월성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고 따라서 인디안의 절멸이 불가피했음을 암암리에 정당화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인디안들의 백인에 대한 정당한 복수 및 투쟁을 어떻게든 설명하고자 한 이 소설이 보여주는 해결책이란 지극히 안일한 것이요 식민주의자다운 자기 중심적 사고라 아니 할 수 없다. 예컨대 복수를 맹세하는 Magua 같은 인디안을 Satan에 혹은 Shylock에 빗대어 묘사함으로써, Cooper는 Magua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핍박의 부

16) Fiedler, *op. cit.*, p. 173.

당함을 상쇄하고도 남도록 만들고 있다. 백인이 그들에게 저질렀다고 느끼는 범죄와 인디언 자신의 범죄가 동등하므로 이들은 다같이 신대륙을 더럽힌 공범자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Cooper 에게는, 미국인의 원죄의식이 되지 않는다. 죄악은 모두 인디언 아니면 영국군·불탄서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므로 새로이 탄생하는 미국인들은 그 업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이다. “Cursed by my tribe/If I forgive him.—Shylock”라는 제 11장의 epigraph 에서 우리는 Magua 와 그의 부족의 멸망을 자초한 것은 바로 그의 복수심이라는 작가의 암시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유추를 가능케 한다. 즉 구약성서의 retributive justice 를 신약성서의 forgiveness 대체했듯, 타락한 유럽인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디언과의 보복의 되풀이를 새로 태어난 미국이 대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가장 용서받은 것이 미국인 자신임은 물론이다.

Natty 를 지배하는 도덕률인 “laws of the woods”라는 것도 인디언들의 “laws of revenge”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Natty 의 반려자인 Chingachgook 와 더불어 자연의 상태의 noble savage 로 고양되고 후자는 단순한 악으로만 제시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유일한 선악의 구분은 Natty 의 편이나 아니냐이다. Magua 의 행위는 그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지만 지나친 복수욕으로 인해 악으로 진락해 버리고 Chingachgook 나 Tamemund 처럼 자신의 종족의 몰락을 그야말로 Stoic 하게 받아들이는 인디언에게는 한없는 동정심이 가도록 씌어졌다. 그렇다면 이들 인디언의 Stoic 한 태도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연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주민들에 의해 더럽혀지므로 다시 서쪽으로 대륙 깊숙히 떠나는 Natty 의 Stoic 한 태도는 모두, Jefferson 식의 혹은 Virgil 식의 농업사회를 이상화한 Cooper 가 점차로 팽창해 가는 산업주의 혹은 상업주의의 물결 속에 자신의 꿈이 그 근거를 잃어감을 Stoic 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The Prairie* 에서는 드디어 <미국의 꿈>의 쇠퇴가 미국인 자신들에게서——그들의 속물적 범상함과 소유욕, 그들의 반지성주의와 반귀족주의에서——비롯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도 악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악은 없으며 타락과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은 있다는 논리이다. 처음으로 Cooper 는 그가 추구한 미국적 야담이 결국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첫장에서 Bush 일가가 Natty 를 만나는 장면은 매우 예시적이라 할 수 있다. Natty 는 언덕 위에서 빛을 등에 받으며 사뭇 장엄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가 Bush 일행에게로 점점 닳아옴에 따라 그는 보통 인간으로 보이며, 결국 죽을 때가 다된 팔십 노인임이 밝혀진다. 신화의 근원에는 역시 인간이 있는 것이다.

백인들, 특히 Temple, Hutter, Hurry Harry 와 같은 유형의 백인들이 인디언을 몰아내는 데에 Cooper 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공감한 것도 아니다. Cooper 는 물론 그러한 필연적인 역사적 추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꿈이 퇴색해 감을 본 것이다.

무엇보다도 Natty 자신도 밖으로 밖으로 밀려난 인물이고 따라서 백인문명의 승리는 그들의 영웅, 그들의 신화적 인물까지도 파괴해 버린 것이다. 허나 밀려난 혹은 소멸한 인디안들과 스스로 물려난 Natty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Natty는 말하자면 속죄양인 것이다. 그는 영토확장의 침병이지만 결국 자신은 그가 닦아 놓은 길을 통해 밀려들어 오는 이주민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다. 그럴수록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때 묻지 않은 자연——을 파괴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해야 하는 숙명 속에 있으며, 이 숙명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엘레지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여러 군데에서 Natty는 빛을 받아 후광이 어리어 있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고 두팔을 펼치고 서있는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분명히 기독교를 저버린 인물(“a man without a cross”)이지만, 신화의 세계에 침범해 들어오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는 명백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십자가는 그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가 짊어진 짐이기도 하다. 마치 미국의 꿈이 미국의 영광스런 표시이자 미국의 짐이듯, Natty의 행위는 사회의 질서든 기독교의 가르침이든 간에 외부에서 부과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신에의 법>에 의해 구속된다. 만약 스스로에 법이 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자신을 추방하는 것이 미국적 아담의 특징 중의 하나라면——물론 여기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철학이 공존하겠지만——이 점은 Natty를 더욱 더 속죄양의 위치에 놓는 것이다.

Leatherstocking tales의 첫 작품인 *The Pioneers*를 쓸 때만 하더라도 Cooper는 Temple과 Natty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중산층 문화가 그의 이상을 잠식해 움을 의식하게 되면서 Cooper는 이 애매성으로부터 벗어나, 1841년 *The Deerslayer*를 쓸 때가 되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그의 향수는 분명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퇴색 내지는 타락을 목도하면서도 결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려면 Cooper는 더욱 그의 신화를 더럽혀 지지 않게 지켜야 했고 Natty는 신화속에서 더한층 젊게 다시 태어나야 했다. 마치 과거 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신화에 종말을 가져온 모든 달갑지 않은 현실에 대한 기억을 씻어줄 수 있다는 듯, Cooper의 현실불만족은 이렇게 점점 더 <자연의 상태>에 대한 동경으로 보상 받는다. 또 Natty가 더욱 순수하고 악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야 하므로 그 이외의 다른 인물들은 Hurry Harry처럼 더욱 타락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 또한 중산층에 대한 Cooper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The Deerslayer*에서의 Natty는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理想의 투사이고 Hurry Harry는 현실이 그렇게 되가고 있다는 불만감의 투사이다. Leatherstocking tales는 이렇게 미국적 아담이라는 신화가 역사의 침범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니 역사의 침범을 받을수록 미국적 아담은 그야말로 신화속의 제 위치를 굳혀 간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신화는 역사에 의해 정의되고 제한된다는 사실은 Cooper의 소설이 제시하는 잠재적 주제인 동시에, 어쩌면 아직 유년기였던 미국문학이 그 후로 겪어야 할 역사에 의한 신화의 수련과정을 말해 주는지도 모

른다. 미국문학사는 사회에의 initiation 을 다룬 성장소설로 가득찼지만, 미국문학사 자체가 하나의 성장소설로서 유년기에서 벗어나 <미국의 꿈>을 현실로, 미국적 아담이라는 신화를 역사로 제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훈이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다분히 Jefferson 주의자였던 그였고, 이른바 Jacksonism 의 물결 속에 미국이 민주화되는 것을 비판했던 Cooper 가 Natty 와 같은 법을 등진 인물——땅을 소유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주변적 존재에 머물렀던——을 신화화한 것은 아마도 그러한 존재야말로 Copper 와 같은 지주계층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Natty 와 같은 존재는 애당초 땅을 소유할 욕망이 없었을 뿐더러 계속 떠돌아 다녀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4.

역사를 가진 모든 민족은 낙원을 가지고 있다고 Schiller 는 말한 바 있지만 낙원에 관한 신화는 보편적 현상이다. 물론 낙원이란 역사적 인간이 그들의 이상을 과거에 투사해서 만들어 낸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문학은 그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낙원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원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 정치·경제적 여러 이해관계가 낙원의 개념으로 미화·변모되어 나타남에 주목함으로써 미국문학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Lewis 가 제시한 대로 <미국적 아담>이 절대화된 사실 자체는 설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미국적 아담>의 신화는 미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순수의 세계를 떠나지 않은 채 경험의 세계에도 들어가는 문턱에 있다는 말이요 그야말로 역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현재와 미래만이 있을 뿐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이 집단적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는 미국의 신화라면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René Girard 가 욕망과 미메시스의 긴장관계로 파악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self-image 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他人——이 경우 유럽에 해당한다——의 역할을 부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Girard 는 이 현상을 스스로를 정립시키기 위한 인간의 존재론적 질병이라고 파악했다. 과연 미국문학은 他者로부터의 영향을 인지하려 들지 않으려는 충동으로 접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awrence 가 미국문학에서 읽은 “American grouch”도, 미국문학에서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자아의 주장과 자기 정체성의 위기, 소외 등의 주제도 모두 이러한 존재론적 질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미국적 아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거는 미국인이 버리고자 했던 유럽이었고 유럽은 미국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John Donne 이 완벽한 낙원과 같은 Twickenham Garden 을 방문하면서 그곳을 더욱 완벽한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뱀을 한마리 가져왔노라고 아이러니컬하

게 말했듯, 미국인들은 신대륙의 낙원에 그들 자신, 즉 유럽인을 가져온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아담의 순수성에 집착하더라도 과거로부터의 도피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미국문학의 잠재적 주제라는 말이 된다. Lewis가 말하듯 “과거의 부정은 그 보상작용으로 과거의 과거성 그 자체를 위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낳았다.¹⁷⁾” 이 점이 미국문학으로 하여금 순수함과 원죄, 현재와 기억, 새로운 것과 전통 등의 대립개념에 집착하도록 만든 것이다. 미국문학이 만들어 낸 신화가 아무리 단선적이라 할지라도 미국문학은 이중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은 지배적이긴 하나 여기에 회의가 있게 되고, 신화는 역사에 의해 변질되면서도 미국의 이상은 역사를 초월한 비역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지어 Louis Hartz의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¹⁸⁾에서 우리는 미국사회와 미국문화에 관한 흥미로운 진단을 발견할 수 있다. Hartz는 미국의 정치사상과 풍토를 지배해온 것을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이것의 본체는 미국의 역사가 이탈해온 바로 그 유럽의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역사의 다양한 역동과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왔으므로 미국의 자유주의는 그것이 본래 주창된 역사적 사회적 상관성을 잃고 절대적인 가치로 고착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적 자유주의의 연원인 Locke의 철학에 내재하는 바, <자연본연의 상태>를 상정하는 Locke의 보편주의에 더욱 힘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태어난> 개인의 자연권이라는 개념도 유럽의 맥락에서 보면 봉건적 가치관에 대항하기 위한 논쟁적 명제로 등장하여 시민계급이 주창한 이데올로기적인 무기로 이해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사실>로 치부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즘은 논의되는 Speech-act theory에 입각하여 표현하자면 Locke에 있어서는 performative였던 개인의 자유가 미국에 와서는 constative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performative로서의 <미국적 아담>이니 <미국의 꿈>이니 하는 개념들이 어느덧 constative로서 미국인의 의식속에 자리잡게 된 과정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17) Lewis, *op. cit.*, p.8.

18)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New York, 1955).